

8개월 휴장 후유증 제각각...관망 기간 필요

선수들 생계에 따라 훈련량 차이
최소 2~3회차 베팅 승부 피해야
출주 전 컨디션 파악도 중요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이에 따라 야구, 축구 등 각종 프로스포츠도 제한적으로 다시 입장객을 받고 있다. 경륜 재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륜은 코로나19로 지난 2월 휴장에 들어간 이후 단 한 번의 경주도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재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선수들이 경주가 재개됐을 때 과거 정상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점이 다. 워낙 공백이 길었던 터라 경륜 팬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따를 의문부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8개월여 간의 휴장 후유증이 생각보다 꽤 클 것이라 입을 모은다.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인해 선수들은 그야말로 삶의 터전을 잃은 셈이었다. 출전 수당과 상금이 주된 수입원인 선수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다. 결국 집중해야 할



코로나19 위험성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경륜 재개장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오랜 기간 쉬었던 경륜이 다시 레이스에 들어갈 여건이 마련되면서 '휴장 후유증'이 향후 어떻게 경기력으로 나타나는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운동은 뒷전이 됐고 상당수의 선수가 당장의 생계를 위해 부업전선에 나섰다.

정신적인 상실감이나 피로도도 컸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은 경기를 진행하고, 극장, 노래방, 워터파크 등과 같은 시설도 제한적이거나 영업 중인 것을 보며 경륜 선수와 업계 관계자들은 크나큰 소외감을 느꼈다.

공익사업을 위한 세수 확보, 고용 창

출 등 사회적 기여가 큰 합법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란 일부 시선 때문에 경륜 관계자는 물론 이들의 가족들까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한때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해외에 나가 맹위를 떨쳤던 화려한 아마 경력의 소유자들도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연체 경륜 경주가 열릴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경륜 예상지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행인은 팬들이 재개장 직후에 경주를 대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했다. 우선 선수 개인당 최소 2~3회차를 소화하는 약 두 달 정도는 관망한다는 자세로 선부른 베팅 승부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와 반대로 훈련에만 집중했던 선수의 각력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간극을 좁히고 대다수 예전 기량을 회복하는 것 또한 시간이 걸린다는 견해다. 결국 선수들의 훈련량, 컨디션 파악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또한 공백 기간이 길었던 만큼 선수들은 출주 전 자신의 몸 상태를 솔직하게 밝히야 하고, 경주를 관리하는 경주 운영부서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 부분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륜 방송팀은 팬들의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개장 전 선수와 훈련 매니저, 전문가들과 함께 베팅 집값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다. 재개장 직전 경륜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과 객차 내 방송을 통해 발 빠르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사이클 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27·28일 개최

'2020 트랙 국가대표 선수 선발 평가대회'가 27일과 28일 광명 스피돔에서 열린다. 2019년과 2020년 전국대회 우수 선수(트랙 종목 개인 및 단체 6위 이내 입상자)가 참가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부는 아시아 최대의 사이클 전용 돔 경기장인 광명 스피돔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선수단의 안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사회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방역관리를 위해 대회장 내 팀부스에 등록된 지도자 이외 인원은 출입이 불가하다. 참가 선수와 지도자도 대회장인 광명 스피돔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QR코드 체크인, AD카드 착용 확인, 체온측정, 확인도장 등의 입장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한편 이번 평가대회에는 '경륜 어벤저스'로 불리는 KSPO 프로 경륜 트렉팀 소속인 정종진, 황인혁, 류재열, 성낙송, 양승원, 정해민, 정하늘 등 7명의 선수가 스탠딩 스타트 333m와 1km, 플라이 스타트 200m와 500m에 참가한다.

불법스포츠포도박 지난해에 비해 288% 증가

한 달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7351건, 홍보글 2548건이 신고 접수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불법사이트는 288%, 홍보글은 67% 증가한 수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부는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손잡고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61명의 인원으로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등 경주류 합법 사행산업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고 접수된 불법사이트와 홍보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결과를 토대로 접속 차단 및 삭제해 이뤄질 예정이다. 포상금은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된다. 한편 경륜·경정과 스포츠포도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용문 기자

지난해 경정 '삼쌍승식 6391.7배' 최고였었지!

12월 12일 15경주 역대 최고 배당
1위 맞히는 단승식 '166.4배' 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에서는 경정장을 찾는 팬들을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 외에 쌍복승식과 삼쌍승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총 7가지 승식 중 역대 최고 배당을 알아본다.

선수 1인을 선택 후 해당 선수가 1위인 경우에 배당금을 받는 방식인 '단승식'의 최고 배당은 2006년 6월 11일 1일차에서 나왔다. 아웃코스에서 위치했던 5번정 유근영의 휘감아찌르기가 통하면서 당회차 첫 경주에서 166.4배를 선사했다.

'연승식'은 앞선 단승식과 같이 선수 1인을 선택 후 그 선수가 2위 이내인 경우에 배당금을 받는 형식이다. 단승식보다는 적중률이 높아지는 만큼 환급액은 적어진다. 연승식 최고 배당은 2019년 12월 12일 2일차 15경주에서 아웃코스의 6번정 김태용이 우승을 껴차 68.5배를 기록했다.

선수 2인을 조합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같지만 '복승식'은 1위와 2위 순서에 상관없이 적중된 경우에 배당금을 받고, '쌍승식'은 1위와 2위를 정확한 순서대로 적중된 경우 배당금을 받는다. 복승식과 쌍승식 최고 배당의 주인공은 2019년 3월 27일 첫날 4경주에서 나왔다. 인코스 선수들의 1번 경합을 틈타 공간을 찢은 4번정 한운과 5번정 사재준이 초반 선두권을 형성했



으나 주도권 다툼이 과열됐고, 그 뒤에서 차분하게 추격을 하던 6번정 손지영이 2주 1전에서 내선을 파고들어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후속하던 4번정 한운과 동반 입상하면서 쌍승식 1397.4배와 복승식 295.1배의 초대박 배당이 터졌다.

1·2·3위 선수를 순위에 관계없이 적중시키는 방식인 '삼복승식'은 앞선 단승식 최고 배당이 나왔던 16회차 2006년 6월 11일 첫 경주다. 당시 우승 후보였던 2번정 장영

태가 1주 2번 선두 경쟁 중 전복 사고로 실격됐고, 인기순위 3위였던 5번정 유근영이 우승을 해 인기순위 4·5위였던 6번정 임인섭과 1번정 민영건이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해 삼복승식 3395.9배가 기록됐다.

'쌍복승식'과 '삼쌍승식'은 앞서 연승식 최고 배당이 나왔던 2019년 12월 12일 2일차 15경주에서 최고 기록이 나왔다. 쌍복승식은 1위를 정확히 적중시키고 2·3위를 순위에 관계없이 맞추는 승식이며, 삼쌍승식은 1·2·3위 선수를 모두 순위에 맞게 적중시키는 방식이다. 1번정 김국흠과 우승 후보였던 3번정 문주엽을 비롯해 4번정 손제민이 1번 마크에서 한꺼번에 몰리며 공간이 열렸다. 그사이 6번정인 김태용이 선두를 꿰찔고 5번정 김종민과 2번정 김중희가 추격을 했으나 순위를 뒤집지 못해 쌍복승식 4434.7배와 삼쌍승식 6391.7배의 폭탄 배당이 나왔다.

정용문 기자

스포츠

해외파 없는 '휴엔케어 여자오픈'...최혜진·임희정 시즌 첫승 쓸까

최혜진, 대상포인트 357점으로 선두
임희정, 13개 대회 중 9번 톱10 꾸준
22일 티샷 '휴엔케어 오픈' 우승 도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2020시즌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상포인트 1위는 최혜진(21·롯데) 차지다. 지난해 5승을 거두며 성적으로 결정하는 대상·상금왕·평균타수·다승 등 4개 부문을 모두 쓸 여파였던 최혜진은 이번 시즌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지만 20일 현재 대상 포인트 357점으로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2위는 지난해 3승을 거뒀던 임희정(20·한화큐셀). 임희정 역시 올 시즌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334점으로 최혜진의 뒤를 잇고 있다. 시즌 최우수선수(MVP) 성격의 대상은 총상금 규모에 따라 매 대회 우승자부터 10위까지에게만 순위별로 차등을 줘 점수를 주고 이를 합산한다. 올 시즌 나란히 2승씩을 수확한 김효주(25·롯데)와 박현경(20·한국토지신탁)이 대상 포인트에서 만큼은 각각 295점(4위), 196점(9위)에 그쳐있는 것도 '꾸준함'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최혜진은 이번 시즌 12개 대회 중 11번에



최혜진

걸쳐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임희정은 13개 대회에 나서 그중 9번 톱10에 진입했다. 둘은 올 시즌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최정상급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아있는 대회는 4개. 둘 중 누가 우승컵을 먼저 들어올릴까. 22일 개막하는 '2020 휴엔케어 여자오픈'이 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남 영암의 사우스링스 영암CC(파72)에서 열리는 휴엔케어 오픈에는 직전 대회였던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탠챔피언십'에서 압도적인 스코어로 우승을 차지했던 김효주를 비롯해 단독 2위에 올랐던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솔레이), 공동 3위에 올랐던 이정은(24·대방건설) 등 '해외파'가 휴식 차원에서 불참한다. 11월 미국



임희정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 해외파들은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이번 대회를 건너 뛴다. 당초 시즌 마지막 대회인 SK텔레콤·ADT캡스 챔피언십(11월 13~15일)까지 잔여 4개를 모두 뛴 예정이던 김효주도 불참을 결정했다. 김효주 측 관계자는 20일 "스타챔피언십 마지막 날 목과 손목 등에 가벼운 통증을 느꼈는데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개 대회는 모두 참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처럼 해외파 없이 치르는 대회. '무승'에 그친 국내파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최혜진과 임희정, 둘 중 누가 먼저 웃을까. 아니면 새로운 제 3의 열풍일까. 여자 골프팬들의 눈길이 영암으로 모아지는 이유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체육인 맞춤형교육으로 '한국스포츠 100년' 연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교육 비전선포식

스포츠7330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일 오후 2시 전남 장흥에 위치한 체육인교육센터 부지에서 '스포츠인교육 백년대계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전남 지역 체육인사 등 100여 명이 현장 참석하고 선수, 지도자, 심판, 종무단체 및 지역 체육단체 관계자 등 교육 대상자 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대한체육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미래 스포츠인재를 양성하고 체육인에게 종합적, 체계적인 맞춤형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에 착수하며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비전선포식에서는 체육인교육센터 홍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건립개요 및 사업결과 보고, 체육인교육센터 정식 명칭 및 홍보 슬로건 발표가 이어졌다.

'스포츠인 교육 비전 2030'을 통해 새로운 스포츠 환경에 걸맞은 스포츠인재상을 제시하고 체육인교육센터 미래형 공간·조감도를 발표하는 등 미래 100년을 여는 스포츠교육 비전을 선포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참가자가 함께 비전 선포를 기념하는



20일 전남 장흥 체육인교육센터 부지에서 '스포츠인교육 백년대계 비전선포'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체육회

세리머리 퍼포먼스를 한 후 체육인교육센터 건립과 스포츠인교육 비전 선포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공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교육센터가 대한민국 스포츠 교육의 요람이자 중심지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며 "교육을 통해 체육인들이 변화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며 새로운 스포츠 가치를 선도해나가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체육회는 2023년 완공될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을 계기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교육을 통해 한층 성숙하고, 스포츠인은 건강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스포츠가치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